

# 윤성원 차관, “주민소통 기반 도심 주택공급에 총력”

- 5일, 공공재개발 후보지 찾아 정책의지 표명·전폭지원 약속 -

- 윤성원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11월 5일 공공재개발 후보지인 수원시 고색동 현장(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고색동 88-1 일원)을 방문하여 공공 주도의 도심 내 주택공급에 대한 정책 의지를 밝혔다.
- 윤 차관은 후보지를 둘러보며 “공공재개발 등 공공정비사업을 통해 노후화된 도심 주거지를 신속히 정비하여 실수요자에게 도심 내 양질의 주택을 공급할 필요성이 있다”고 강조하였다.
- 먼저 후보지를 찾은 윤 차관은 공공재개발 추진 동향 및 향후 고색동 88-1지구 공공재개발 사업 추진계획 등을 보고받으면서,
  - “공공재개발은 주민의 높은 호응, 공공의 전문성, 제도적 지원\* 덕분에 서울 24곳, 경기 5곳의 후보지에서 유례없이 빠른 속도로 진행 중이며, 이를 통해 향후 3.4만호가 공급될 예정”이라고 밝혔다.
    - \* (도시규제 완화) 용적률·용도지역 상향 / (사업비 지원) 사업비·이주비 용자 (리스크 관리) 관리처분 시 분담금 확정 / (신속한 인허가) 통합심의 적용
  - 이 자리에서 윤 차관은 “특히 서울 내 4곳 후보지\*는 이미 사업 시행자 지정을 완료하고 정비계획 수립 절차를 추진 중에 있다”고 설명하였다.
    - \* 동대문구 용두1-6, 동대문구 신설1, 종로구 신문로2-12, 동작구 흑석2
- 이어 윤 차관은 이번 통합공모 지원을 주도하였던 지역 주민 등을 만나 후보지 현황 등에 대한 설명을 들으며,
  - “고색동 88-1지구는 주민들의 개발수요를 반영하여, 주민들이 직접 사업을 제안하는 방식으로 추진된 첫 번째 후보지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”고 강조하였다.

- 윤 차관은 이어서 “지자체와 지역 주민들의 호응을 바탕으로 빠른 속도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도록 하겠다”라고 덧붙였다.
  
- 마지막으로 윤 차관은 “지역 주민과 지자체, LH, 그리고 국토부가 함께 노력하여 수원시 권선구 고색동 88-1지구가 공공재개발 성공사례로 자리매김할 수 있길 바란다”면서,
  
- “앞으로도 공공정비사업의 이점을 적극 활용하여, 보다 많은 지역에서 신속하게 노후 주거환경이 개선되고 양질의 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”고 밝혔다.

2021. 11. 5.

국토교통부 대변인